

“학교 밖 학생 자유로이 꿈 이뤄야”



이민철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학교 설립해 위기 청소년 지원 요리·사진 등 직업교육장 5곳 운영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민철 센터장(51)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학교를 나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이 센터장은 고등학교에서 문학회 활동을 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홍사단’에 몸을 담으면서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 센터장은 2011년 ‘레미학교’를 설립, 30여명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했고, 2012년 개소한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2년부터 센터장으로 취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제도 밖으로 학생들이 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광주지역에서 1,500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40여만명이 학교라는 울타리

를 벗어나고 있으며 이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대안학교 입학,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는 레미학교를 비롯한 11개의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요리, 사진, 인테리어, 가죽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장 5곳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학교밖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와 상담 등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려는 청소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이 센터장은 “교육정책이 제대로 바뀌어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불렸던 곳들이 지금은 마이스터고, 예술고, 특성화고 등으로 달리 불리고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움직이는 시스템은 예전 상고나 공업고와 다를게 없다”며 “지금 학생들은 방송 댄스, 뮤지컬, 실용음악, 바리스타 등 세분화된 꿈을 키우고 있는데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다보니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또 “어른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고충을 들어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더라도 자유로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내년 SW 교육 전면 도입 역부족 광주·전남 학교 컴퓨터 20% 노후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전면 의무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 10대 2대는 구입 6년이 지난 노후 컴퓨터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 컴퓨터 구매시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316대) 중 21.1%는 조달청에서 정한 내구연한 5년을 넘겼다. 이중 6년을 초과한 컴퓨터는 11.1%에 달했다.
전남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816대) 중 10.1%는 내구연한 5년을 넘겼고, 6년을 초과한 컴퓨터는 10.0%에 달했다. 반면 구매한 지 1년 이내 최신형 컴퓨터는 광주 10.6%, 전남 13.4%로 조사됐다.
전국 학교의 전체 보유 컴퓨터의 수량에 대비해 구입시기가 6년을 초과한 컴퓨터의 비율이 평균 17.0%, 1년 이내의 컴퓨터의 비율이 15.5%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20.7%), 광주(20.0%), 인천(19.7%), 서울(19.0%), 경기(18.8%), 경남(18.6%) 순으로 낮은 컴퓨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기존시점 이후 교체된 컴퓨터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중·고교에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법무부, 광양서 ‘법사랑타운’ 준공식

등 단위로 넓은 ‘2세대 셉테드’ 사업

법무부는 20일 광양시 광영동에서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광양 법사랑타운은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셉테드 사업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범위도 특정 범죄예방 지역이 아닌 동 전체 단위로

확대한 ‘2세대 사업’의 첫 사례다. 기존의 셉테드 사업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개선 방식에 탈피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광양 법사랑타운 사업 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정부와 지자체, 자원봉사자 함께 하는 지역 맞춤형 법사랑타운 표준 모델을 개발해 범죄예방과 안전감도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장애 체험 활동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서구청과 함께하는 장애체험’에서 임우진 서구청장과 공직자, 시민 등이 휠자전거와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치매환자 폭행 시립요양병원장기소

광주지검, 증거인멸 직원도 구속 기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이 병원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다른 입원 환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것으로 추가로 조사됐다.
직원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간위탁이 해지됐다. /황애란 기자

해광건설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0월 10일자 사회면(9면)에 ‘해광건설 아파트 관리비 이중징수 ‘말성’ ”이라는 제목으로 해광건설이 월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아파트 관리비에 이중 부과 징수하고, 멋대로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해광건설은 월 임대료 산정요소인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축비의 연간 1000/4) 등을 산정했고, 이와 별도로 법령(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관리비 항목)에 따라 아파트 위탁 관리 회사(성원산업개발)가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하기 총액비 등 소모적 지출에 사

용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수선유지비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비를 이중 부과 징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해광건설은 임차인에게 전전형 임대아파트 계약임을 설명했고 계약자가 서명했으며, 관리사무소의 소방시설 작동 가능 점검 등 소모성 관련 경비는 법규상 일반 관리비 항목에 포함할 수 없고,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사무비 제세공과금 부과 항목으로 아파트 유지·보수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임대료의 수선유지비는 주택의 가치 보전을 위한 공사 용역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노래방서 ‘무전취식’ 40대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40대가 경찰서행.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모씨(43)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부터 다음날 새벽 2시 25분까지 북구 용봉동 한 단란주점에서 혼자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 40만원을 내지 않은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맹전 환풍 없으면서 비산 술을 시키는 것은 무슨 배짱이나”며 혀를 끌권다. /김용현 기자

부안 숙박시설
(모텔) 매매·임대

(주택가능, 펜션, 모텔 적합)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2개동 (룸 43개)

감정가 16억

매가 9억 (1개동 매매시 5억)
(웅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 교환 가능 ☆

직매 010-6670-9800

상무지구 상가
매매

상무지구 현대아파트 입구 바로앞

금용가 대로변 (광고효과 최고)

8층 중 4층 (45평) 내부개끗 / 주차 가능

보 2천 월 100만

시세가 2억3천

매가 1억9천 (웅7천)

직매 010-6670-9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 (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2천

매가 8천8백

직매 010-6670-9800

경매
췌대신경매

- 1) 동구 총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7억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 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 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 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 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
- 6) 전주시 완산구 전동 (3층 상가건물)**
토지 26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

010-7384-7800

경매교육

-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 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
- 4)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핵심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사용하실분

010-6670-9800